

# 더민주-국민의당 '제1당' 치열한 주도권 싸움

## 뉴스분석 일여다야 구도 정립

### ■ 광주·전남 판세 전망

여야의 4·13 총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광주·전남의 선거구에도 각 당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또 이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선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다음주 초에는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대결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오후 현재 더민주주는 광주에 2명, 전남에 6명 등 모두 8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또 광주 동남구에 이병훈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하고 발표만 남긴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9명 후보를 확정할 셈이다.

국민의당은 광주 2명, 전남 2명 등 총 4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또 더민주주는 광주 3곳, 전남 4곳 등 모두 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당은 광주 6곳, 전

광주, 국민의당 “견고한 우세” 더민주 “지지세 회복”

전남, 당지지도 격차 크지 않아 인물 위주 대결 될 듯

다음주 초 대결 구도 확정 ... 경선결과 따라 변화 가능성

남 6곳 등 모두 12개 선거구에서 이번 주말 또는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각각 경선을 마칠 예정이어서 다음주 초에는 극히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구의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광주에 6명, 전남에 4명 등 모두 10명을 공천 확정했으며 추가 공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의당은 광주 4명, 전남 3명 등 총 7명, 민중연합당은 광주 5명, 전남 4명 등 총 9명, 민주당은 광주 1명, 전남 2명 등 총 3명을 각각 후보로 내세웠다. 이들 정당도 추가로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 많은 지역에 공천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당대당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까지 야당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지역 선거구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끝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전남에서 어떤 당이 1당이 되느냐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다소 우위를 점한 가운데 더민주 후보들이 경선을 끝내고 추격전을 전개할 것이라 분석이 일반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광주지역에서는 아직도 견고한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반면 더민주 관계자는 “일부 선거구에서 더민주 지지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야당의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결정되면 총선이 인물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총선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한 물결이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두 야당의 경선 결과에 따라 당 지지 여론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광주와 달리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당 지지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후보자들의 면면에 따라 당 지지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남에서는 당 경쟁보다는 인물경쟁 위주로 선거전이 흐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더민주 광주시당 관계자는 “아직 공천이 끝나지 않아 전반적 선거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나타나는 지역구의 우열 분위기는 경선 결과와 향후 선거전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어느 총선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지방 정가

### 강성희 도의원 발의 '청소년육성 조례개정안' 통과

전남도의회 강성희 의원(기획사회위원회 위원장,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전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관련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개정 ▲전남지사는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 추진 ▲전남도 공공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인건비 지출을 마련해 적용 등이다.

### 송형곤 도의원, 주거약자 환경개선사업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0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주택법 개정 및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약



자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 근거 마련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주거약자’로 명시하는 용어 정의 신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보수비 지원 사항 신설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전정철 도의원, 공공데이터 효율적 활용 경제활성화

전남도의회 전정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담양1)이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에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설치·구



성해 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과 시행계획,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및 중단사유 해소 여부 등을 심의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따르면 전남도가 지난 2014년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실적은 5건(8건 신청), 지난해에는 4건(21건 신청)에 불과하다.

### 서동욱 도의원 '병역명분가 지원 조례안' 통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욱(순천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병역명분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병역명분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전남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전남지사가 병역명분가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명분가에 대해 전남도가 설치·운영하



는 시설 등의 사용료, 임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문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분가 집안이 도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전남도, 22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오는 5월 중국시장을 겨냥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중국 시장개척단은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중국 대련, 북경, 천진을 방문해 마케팅을 벌일 예정이다.

시장개척단은 전남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어나 영어로 된 카탈로그 또는 동영상 등을 가진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 업체도 가능하다.

전남도는 신규 업체를 위해 카탈로그 제작 지원 사업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장개척단은 10개 업체 내외로 구성되며, 업체 선정은 현지 시장성 평가와 수출 능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업체나 영세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공동체 기업까지도 참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참가 업체로 선정되면 바이어 발굴, 현지 통역, 상담장 입차, 항공료 일부 등을 지원받게 되고, 선정된 업체는 항공료 50%와 숙박비 등 체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참가를 바라는 업체는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곧게 입다문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중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공천학살' 새누리 수도권 지지율 13.1%P 폭락

새누리 36.5%·야권 53.5%

#### 리얼미터 조사

공천학살 파장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6년 3월 3주차 주중집계(14~16일)에서 새누리당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40.7%를 기록했다. 일간으로는 이한구 위원장의 발언이 있던 14일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41.4%로 시작해, 윤상현 의원과 이재오, 진영 등 비박 의원이 대거 탈락한 15일에는 정세현

다기,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이 총 돌한 16일에는 40.4%로 떨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9.3%, 국민의당은 12.2%로 각각 1.5%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정의당 역시 2.1%포인트 오르며 7.8%를 기록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22.7%로 20%대를 지키며, 2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6.2%포인트 앞섰다. 안철수 대표는 반등했으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오차범위 내인 0.2%포인트 뒤처진 4위를 기록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

권에서의 새누리당 지지율 대폭락이다. 새누리당의 수도권 지지율은 지난주 49.6%에서 이번 주 36.5%로, 무려 13.1%나 폭락했다. 이어 더민주 33.8%, 국민의당 10.2%, 정의당 9.5% 등으로 야권이 53.5%를 기록해 새누리당보다 17.0%포인트 더 높았다.

이번 주중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60%)와 유선전화(40%) 병행 임의결기(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4.4%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 모 집

자격 관리 운영규정 제7장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인정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교부

- 등 급
  - 주거환경개선사 (단일급)
  - 통맥풍수지리사 (1급, 2급, 3급)
- 응시자격
  - 본학회 4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 응시가능 (년2학기 : 1학기당 15주 30시간)
- 풍수지리학 강의
  - 개 강 : 상반기 : 3월 첫주 월요일, 하반기 : 9월 첫주 월요일
  - 시 간 : 매주 월요일 19:00 부터 (2시간)
  - 과 목(내용) : 자격종별로 별도 커리큘럼 참조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0-27번지 3층 (북구청 앞, 튼튼정형외과 병원 옆)
- 문 의 : ☎ 062-511-2488, 010-3615-2488
- 홈페이지 : http://tmfs.kr 또는 "통맥풍수" 를 치세요. e-mail : insans@daum.net

### ■ 이사장 윤갑원 (尹甲源) 프로필

- \* 光州出生(1937年 丁丑生)
-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修了
- \* 前 羅州公共圖書館長 (書記官) 역임
- \* 前 韓國公認仲介士協會 風水地理學班 專任講師
- \* 前 社團法人 韓國人間開發研究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경희대, 東서울대, 충북대학교, 부동산학과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德成女大, 서울教育大, 대구교대, 대구가톨릭대, 충북대, 全南大, 木浦大, 順天大, 麗水大學校 平生教育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風水地理學專擔講師
- \* 現 서울, 대구, 청주, 원주, 부산, 광주會圓 매주 定期的인 現場教育 實施
- ◆ 著 書
  - 1. 道洗通脈地理(宮中秘傳風水) 總整理版(改正增補 1~6 版)
  - 2. 半坪의 眞理(통맥풍수지리학 입문서)(改正增補 1~5 版)
  - ◆ "선조합동묘(先祖同墓)" 장법(葬法), 천개(天蓋)용 "봉판(棚板)"



## 제5대 이사

- 이 사 장 윤 갑 원
- 상임이사 김 응 국
- 이 사 김 중 수
- 이 사 임 태 중
- 이 사 황 정 연
- 이 사 이 종 근
- 이 사 정 병 선
- 이 사 양 동 주
- 이 사 정 태 일
- 이 사 이 미 경
- 감 사 박 석 규
- 감 사 김 영 희
- 사무국장 윤 인 성
- 총 무 조 복